

## 2016년 책가방 보내기 사업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추위가 물러나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받아 첫 시작을 준비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정성이 담긴 책가방을 전하기 위해 오신 KB국민카드 운영원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차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으로 교육, 의료, 문화, 사랑 등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들로부터 배제된 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은 참고 견딜만 하지만 부모의 직업, 살고 있는 집의 규모, 사교육 혜택 등 경제적 잣대로 초등학교 입학부터 나와 나, 우리를 구별하는 현상들은 어린 학생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해지는 책가방 보내기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만능 중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어른들 때문에 좌절과 상처를 느끼게 될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와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 행복을 나누는 상생의 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기원하고, 이 땅의 모든 아동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찾아 갈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힘써주신 KB국민카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